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무량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 주님은 사랑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순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국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